

과테말라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4

I. 일반개황	
II. 경제동향	1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과테말라

I. 일반개황

면적	109천 Km ²	GDP	425억 달러(2008년)
인구	13.7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3,103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Quetzal(Q)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7.77(2008년 말)

- 과테말라는 중미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멕시코와 벨리즈, 남으로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접경함. 메스티조와 마야 토착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인당 GDP 약 3,103달러인 하위중소득국임.
- 1996년 12월 정부와 반군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36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1980년대 중반까지 커피, 설탕 등의 작황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후 농산물 수출다변화정책 실시, 보세가공무역지대 설치 등으로 경제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2008년 1월 알바로 콜롬(Alvaro Colom)정부 출범 이후 친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치안안정, 부패척결, 빈곤축소 등의 균형 발전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나 여소야대 정국 상황, 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관료주의 및 부패 지속 등으로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상황임.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3.3	5.4	6.3	4.0	1.2
재정수지 / GDP	-1.7	-1.9	-1.4	-1.5	-2.9
소비자물가상승률	8.6	5.8	8.8	9.4	6.6

자료 : IFS, EIU

□ 경제성장 둔화 전망

- 과테말라 경제는 2006년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은 내수 회복 및 허리케인 Stan의 피해복구를 위한 건설 부문 정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5.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는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커피 및 설탕산업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증가,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과거 30여년간 가장 높은 6.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 상반기 국제 곡물 및 에너지 자원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등 불리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소폭 낮아졌음.
- 한편, 2009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 미국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2000년 들어 가장 낮은 1.2%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 적자 확대 기조

- 과테말라는 낮은 외채상환 부담,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2006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허리케인 Stan의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1.9%까지 확대되었으나, 2007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이 1.4%로 낮아졌음.

- 2008년에는 경기둔화 및 '1996년 평화협정지원을 위한 특별세(IETAAP)' 종료 등으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다소 증가하여 적자폭이 GDP의 1.5%를 기록함.
- 2009년에는 2월 중 통과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8.7억 달러 규모의 '긴급경제회복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Emergencia y Recuperación Económica)'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폭이 GDP의 2.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

- 과테말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허리케인 Stan 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04-06년간 6-8%의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7월 14.2%를 기록하던 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유가격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11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2008년 평균 9.4%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Quetzal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6.6%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제조업 기반 미약 및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 과테말라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이 커피, 설탕, 바나나 등으로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여 자본재, 소비재 및 석유제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미국으로, 2008년 전체 수출의 39.1%, 수입의 36.0%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DR-CAFTA 발효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로 향후 대미 의존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 대형 인프라 사업 등 개발 수요 풍부

- 알바로 콜롬 대통령은 출범 직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태평양 연안도로, 태평양-카리브해 연결도로 등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중임.
- 상기 프로젝트의 사업비용은 총 32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항만, 보건, 상수도 등의 사회인프라 개발수요도 상당하나, 재원마련이 어려워 당분간 건설업 및 운송업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FDI 유입 증가

- 중미 5개국, 도미니카 공화국 및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DR-CAFTA가 과테말라 의회의 협정발효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역내 무역통상 증진 및 대미 수출 증대, FDI 유입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FDI 유입 규모는 에너지와 건설부문에서의 이스라엘, 스페인 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한 5.3억 달러, 2008년에는 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기업들이 석유와 가스, 광업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지속적인 FDI 유입이 기대되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 감소

- 해외거주 과테말라인들의 본국 송금 규모는 2007년 3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전체 GDP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비중이 높아 안정

적인 외자 수단으로 여겨왔으나 2008년 3분기부터 미국내 실업 증가와 엄격해진 이민자 규제에 영향을 받아 송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상품수지 적자 보전 및 민간 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 송금은 2007년까지 연간 15-20%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급격히 감소하여 4%의 증가에 그침.

□ 긴축 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노력

- 과테말라 정부(전 베르세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시장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조세개혁에 힘입어 재정 수입이 GDP의 10% 수준에서 2007년에는 GDP의 12%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알바로 콜롬 정부는 경기 둔화를 감안하여 2008년 세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2007년 11월 폐지 예정이었던 '1996년 평화협정 지원 특별세 (Impuesto Temporal de Apoyo a los Acuerdos de Paz)'를 1년간 연장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재정수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였음.

□ IMF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

- 2002년 IMF는 과테말라의 정부재정 건전화 및 금융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에 만료된 동 협정을 연장하는 대신 경제개혁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IMF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 1.8%, 물가상승률 4~6%대 유지 등 과테말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스템 강화, 통계프로그램 기술지원 등 개혁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기술혁신도 지원하고 있음.
- 2008년 3월, IMF는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정부가 달성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조세개혁 성공, 금융부문 강화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1,300	-1,573	-1,754	-2,087	-1,274
경 상 수 지 / G D P	-4.8	-5.2	-5.0	-4.9	-3.0
상 품 수 지	-4,191	-4,852	-5,470	-5,516	-4,150
수 출	5,460	6,082	7,012	7,862	7,449
수 입	9,650	10,934	12,482	13,377	11,599
외 환 보 유 액	3,673	3,924	4,139	4,471	3,499
총 외 채 잔 액	5,349	5,496	5,804	6,038	5,867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7	18.2	16.6	14.2	14.0
D. S. R.	6.0	6.1	6.4	6.2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커피, 설탕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7, 2008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모두 5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각각 17.5억 달러 (2007년 GDP 대비 -5.0%), 20.9억 달러(2008년 GDP 대비 -4.9%)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DR-CAFTA 발효(2006년 7월 1일) 및 중미 관세동맹 진전 등에 힘입어 수출도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루었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 석유수입액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55억 달러, 20.8억 달러로 전년도 수준임.
- 2009년에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와 무역의존도가 높던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반적인 교역규모가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상품수지, 경상수지 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감소세로 전향 예상

- 과테말라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증가, FDI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44.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감소,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1/4분기 외환 유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78% 하락하는 등 향후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국 정부는 IMF로부터의 자금 지원 요청을 고려중임.

□ 총외채규모 양호한 편

- 2008년 총외채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달러 늘어난 6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GDP대비 총외채잔액은 2007년 16.6%에서 2008년 14.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D.S.R은 2007년 6.4%, 2008년 6.2%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착

- 지난 1996년 게릴라 단체인 과테말라 혁명연합군(URNG)과 정부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36년간 지속되어온 내전시대가 마감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원조, URNG의 평화협정 이행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2008년 1월 알바로 콜롬(Álvaro Colom) 정부 출범

- 2007년 11월 치러진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중도좌파인 알바로 콜롬 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알바로 콜롬 대통령은 임기 4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사형제 도입 등 강력한 치안안정화 정책 추진, 고용 증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현 정부의 의회내 입지 축소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

- 2007년 9월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UNE(국민희망당)은 전체 158석중 52석을 차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여타 군소 정당들과의 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세력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벨리즈와의 영토분쟁문제 해결 노력

- 과테말라가 벨리즈 영토의 5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양국간 영토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2005년 11월, 양국은 미주협력기구(OAS)의 중재 하에 회담을 갖고, 영토분쟁문제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 3월 양국은 과테말라시티에서의 회담에서 영토분쟁문제 관련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 대부분의 주변국가와 우호선린관계 유지

- 베르쉐 정부 시절 마약거래 및 돈세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긴밀한 대미관계를 형성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으며, DR-CAFTA 발효로 인해 중미국가들과의 우호선린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06년 7월 대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대만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2007년 11월 칠레, 2008년 2월 파나마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EU 및 캐나다와도 FTA를 추진코자 노력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 축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치안불안과 빈부격차 등으로 사회불안

- 과테말라에서는 심각한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등으로 각종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중미 조직폭력단 척결을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조직범죄 확산 방지, 청년범죄자 재활을 위한 중미기금 창설 방안을 협의하는 등 치안불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는 출범 직후 사형제 부활 법안을 140대 3의 압도적으로 의회를 통과시키는 등 치안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적극 추진중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국제신용평가기관 평가순위

- o OECD: 6등급 (05. 6) → 5등급(06. 6) → 5등급(07. 6) → 5등급(08. 6)
- o Moody's: Ba2(97.8)
- o S&P: BB-(03.5) → BB (06.7)
- o Fitch: BB+(06.2)

- 2006년 6월 17일, S&P는 과테말라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 추진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DR-CAFTA 발효로 인한 경제 전망 향상 등을 근거로 하여 과테말라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2008년 7월, S&P는 과테말라의 조세개혁 정책 성공, 안정적인 외채 구조, 중도좌파로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 등을 이유로 전망(outlook)을 'positive'로 평가한 바 있음.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o US EXIM: 한도범위내 정상인수(Full cover available within market limits)
- o ECGD: 중단기 인수가능(ST and MT cover available)
- o Euler Hermes UK: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ST cover available, restrictions may apply)

3. 외채상환태도

□ 외채구조 매우 양호

- 2008년 말 현재 총 외채규모는 GDP의 14.2%인 60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양호한 편임.
- 2008년에도 지속적인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D.S.R. 또한 6%대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테말라는 1993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수혜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추가적인 채무탕감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외채구조는 안정적임.

□ 스페인 수출신용기관 CESCE 앞 원리금 53.8백만 달러 채무 재조정

- 2006년 2월 CESCE는 과테말라 정부가 10.5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0백만 달러를 과테말라 국내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리금 53.8백만 달러를 채무 재조정하였음. 상환조치 이후 2006년 6월 OECD 국가신용도평가회의에서 동국의 신용등급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는 351백만 달러(2008년) : 수출 (300백만 달러), 수입 (51백만 달러)

- 주요 수출품은 섬유, 자동차, 철강, 전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설탕, 커피, 섬유 등임.
- 대 과테말라 수출은 2006년까지 편직물, 자동차 중심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우리나라의 중미 의류생산기지가 과테말라에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지로 이동하면서 편직물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일본, 미국 등과의 자동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7년부터 전반적인 수출 규모가 축소하면서 2008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3% 감소하였음.

□ 해외직접투자(FDI): 327건, 103,971천 달러(2008년 12월말 기준)

□ EDCF 지원 : 1건, 23.6백만달러 (교육정보화사업)

V. 종합 의견

-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 원유가격 및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하락, 미국 발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축소 및 외국인투자 위축,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2007년에 비해 2.3% 하락한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7년 11월 중도좌파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 1월 출범한 알바로 콜롬 정부는 과테말라의 고질적 문제인 치안, 빈곤, 부패 등의 해결을 위해 사형제 부활, 사회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중임.
- IMF, S&P 등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과테말라의 성공적인 조세개혁 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꾸준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및 외환보유액과 D.S.R 등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근거로 과테말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문의 : 책임연구원 최성규(☎3779-6662)
ppio93@koreaexim.go.kr
 인턴행원 김혜정(☎3779-5651)